



**구인사서 승려수계법회**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은 23일 충북 단양 흥본산 구인사에서 불기 2547년 승려수계법회를 봉행한다.



**미국 동부 한인불교계 시찰**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일면 스님은 22일 미국 동부지역 한인사찰에서 법문을 마치고 5일 귀국했다.



**장애·비장애인 학교 개설**  
영주시장애인복지관장 지현 스님은 4일부터 14일까지 관내 강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학교'를 개최했다.



**불교경영·정보센터 개원식**  
불교아카데미 윤천수 이사장은 22일 오후 5시 서울시 중로구 익선동 57번지 메트로빌딩에서 불교경영·정보교육센터 개원식을 연다.



일주문



**'불교와 여성' 주제 특강**  
동국대 이영자 명예교수는 23일 전주 전북불교대학 4층 법당에서 '불교와 여성'을 주제로 공개 특강을 한다.



**미인미인 100주년 특별전시회**  
동국대 박물관 장총식 관장은 21일부터 2004년 1월 11일까지 LA카운티 미술관에서 미국 이민 100주년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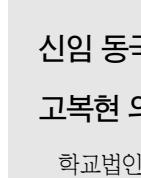
**아름다운 가게 안전점 개소**  
아름다운 가게 박원순 상임이사는 28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3동에서 제4호 안전점 개소식을 개최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건설교통부 송도근 교통관리국장(건설교통부 불자회장)은 7월 26일자로 신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전보됐다.



**한나라당 부대변인에 임명**  
참여불교재가연대 김영국 회원(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12일자로 한나라당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신임 동국의료원장에 고복천 의대학장 임명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 7일 신임 동국의료원장에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고복천(사진) 교수를 임명했다. 경북 문경 출신인 신임 고 원장은 73년 경북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79년 충남대 정형외과 교수, 87년 경북대 해부학과 교수, 98년 동국대의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지역노인복지의 중심 되도록 노력”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노인 복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노인복지의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에 취임한 화평스님(사진)은 향후 복지관 운영을 지역 노인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겠다고 12일 밝혔다.

스님은 우선 “시설방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활성화와 지역 내 독거노인을 자주 찾겠다”며 “평생교육에 중점을 두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노인문제의 해결과 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지역 후원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8월1일 문을 연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은 근자동 일대 1,030여 평의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건립됐다. 복지관은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노인복지의 새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10만 동문역량 조직화 역점

대불련 총동문대회 연 성기태 회장



“창립 40주년, 인생으로 치면 불혹입니다.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나이가 된 셈이지요. 이제는 대불련과 총동문회가 한국불교의

건설’이란 대불련 3대 강령은 한국불교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부터 10만 동문들의 역량을 조직적으로 묶어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성 회장은 특히 대불련 재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에 각 대학 동문대표들과 만나 연석회의를 갖고 스지회장 장학금 지급 △동문회 차원의 취업알선 장구 마련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총동문회의 모든 역량을 후배들에게 쏟아 붓겠습니다. 돈이

대불련·총동문회가 한국불교 주역 될 것

주역으로 나섭니다.”

지난 9일, 전국 단위 첫 대불련 동문대회를 개최한 성기태 회장(54·총주대 총장·사진)은 총동문대회를 ‘대불련의 제2결집’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1면** “한국 청년 불교의 인재 양성은 대불련이 해야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63년 창립 이래, 연기법에 근거한 ‘참다운 구도자, 생령 가지 구원, 복지사회

있는 동문들은 후원금을, 지식이 많은 동문들은 특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재학생 불교회가 쓰러진다는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성 회장은 이와 함께 ‘전문직능별 동문모임’ 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조인·의료인·정치인 등의 동문들을 파악해 오는 11월까지 <동문인명록>을 발간할 계획이다. 법주사는 김철우 기자

“평생도반 찾는 기회 만들었어요”

‘사랑의 연꽃미팅...’ 기획 대불청 정상욱 회장



로 9월 7일 ‘사랑의 연꽃 미팅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사)대불청청년회의 정상욱(사진)회장은 “그간 불교계 청년들의 만남이 드물었던 게 사실”이라며 “연꽃 미팅을 불교청년들의 훈인 기회와 대사회적 활동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어 “기존 행사들의 일회

적인 미팅 개념에서 탈피해 인연여행·사찰음식 만들기·사찰법회 등 3차례 만남을 통해 이성을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 행사를 통해 귀한 만남과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춘천 남이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다채로운 게임에 참여하며 각각 20명의 이성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 둘째날인 21일에는 채소를 씻고 자르며 만든 사찰음식을 다함께 시식해보는 어울림의 자리를 갖고, 10월에는 사찰법회에 참석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지혜를 배운다. www.kyba.org (02)2612-2334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a.com

청주불교방송 사장 취임법회



청주불교방송 사장 취임법회가 14일 청주주관광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규철 불교방송 사장, 이원충 충북도지사, 한대수 청주시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스님은 “지역 불교계와 불교방송이 화합을 이뤄 포교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수료식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13일 여불련 연꽃교육장에서 제 4기 가정폭력 전문상담가 교육프로그램 수료식을 가졌다. 은방희 여성단체협의회회장을 비롯, 4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김묘주 회장은 “가정폭력이 없는 불자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백담사 만해마을 준공식 봉행



백담사 만해마을 준공식이 만해축전기간인 9일 봉행됐다. 이번엔 문을 연 만해마을은 2천여평의 대지 위에 만해박물관, 만해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장 총무원장 스님은 축사를 통해 “만해스님의 문화와 자주 독립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좋은 교육시설로 거듭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입학식



동산불교대학은 2003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9일 서울 중로구 동산불교회관에서 거행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전 포교원장 무진장스님, 동산대 박종 교수,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이진호 연합회총포교사단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2003 7·8 www.kbpf.org



**내가 만난 불교문화** | 홍은식 40년을 사랑한 한국 불화(佛畵), 그 아름다운 감상법 고려 불화에 대한 한결같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난 40년을 걸어오며 특색있는 문화 재시각을 말한다.

**해외통신** | 지금 인도에서는 이렇게 수행한다 인도는 오늘날도 요가수행 중...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인도 교류의 수행법인 요가의 종류와 인도 현지의 요가 수행과 수행센터를 소개한다.

**불교문화 탐방** | 불의 꽃, 등(燈) 스리랑카 부처님오신날인 웨사코야와 동족제 현장을 찾아 중국·일본·한국의 등문화와 비교해 본다·박성희

**2003 여름 사찰수련회** 올 여름도 사찰에서 풀 ~ 하게 보내세요. 참선, 위빠사나 등 목욕을 통한 수행체험 및 선부도, 한문학당 등 특화된 프로그램이 준비한 여름 사찰수련회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연극 속에서 만나는 불교** | 평심(平心) 우분규 박상룡 소설이 길어올린 종교와 신화의 미학이 무대 위 언어로 다시 살아난다. 나를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심(平心)이다

격월간 불교와 문화 02-719-1855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품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력을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기 엄마의 땀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굵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약이며 약안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향비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향비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놀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어떤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 ▶ **매당되는 증상(0)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뒷덜이 고통스럽다.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갈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담노나 감성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매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